

중등부 입교 소감문

중등부 3학년 권하진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에 유아세례를 받고 교회학교의 과정을 거치며 입교가 중학교 3학년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입교를 통해 더욱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 입교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잘 지켜야 하겠다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입교 교육을 통해 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을 기초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입교교육의 숙제였던 성경통독과 매일 성경을 통해 성경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교교육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교 학부모 소감문 중등부 권예승 모 박순미

엄마 아빠의 간절한 기도와 목사님의 축복된 안수가 함께 했던 날, 올 예승이 썩근썩근 잠자며 유아세례 받던 16년 전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가는 2023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충현의 많은 성도들과 중등부 선생님들, 가족, 지인들 모두가 함께하여 축복해준 특별한 날, 인생에 있어 절대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입니다. 예승이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을 다짐하는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승이가 이렇게 기쁘게 입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영아부에서 중등부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과 값없이 흘려보내준 넉넉한 사랑과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충현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뛰어놀며 들었던 말씀들, 은혜롭게 불러졌던 찬양들, 눈물로 부르짖으며 구했던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 믿음의 버팀목으로 세워 질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가 멀어서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을 떨어야 했던 순간도, 엄마아빠의 주일 봉사로 일찍 집에 갈 수 없었던 순간도 불평한 번 없이 묵묵히 기다려주고 지금까지 잘 와준 예승이가 너무나 예뻐요. 누군가는 해야하고 누군가는 꼭 가야 할 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감사하며 순종하는 예승이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살라는 의미로 예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온 마음으로 되새기며 두려워말고 강하고 담대히 기도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어나갈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입교한 30여 명의 모든 중등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입교의 자리를 빛내주신 중등부 선생님들과 목사님께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